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전국회원 모임 실시

지난 4월 13일(토) 전국 회원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유일의료재단(이사장 정경명) 개원기념행사와 왕기석 명창 공연, 회원 교류모임 등을 진행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로 바쁜 주말이었음에도 김병문 이사장과 이강안 원장을 비롯 모두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왕기석 이사께서는 감기 몸살로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투혼의 무대를 만들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자리에서 각자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회원들의 만남은 소중한 아름다웠습니다.

짧았기에 더욱 아쉬운 만남이었지만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부 성악회 회원들이 전주에서 참석한 회원들을 위해 나눠준 마음은 다음을 기약하기에 차고 넘치는 따스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원 11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주최하시느라 바쁜 와중에도 회원들을 위해 마음 모아주신 정경명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한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의 경험도 익숙치 않은 문화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데 목마른 시민과 회원을 위해 연구원이 어떤 고민들을 실천에 옮겨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회원들이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왕기석 이사 공연이 열린 현장에 함께한 회원과 유일의료재단 가족들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전시 안내 해설사와 함께 하는 연구원 회원들

○ 제3차 해외역사탐방 안내

탐방 기간

: 2019년 8월 1일(목) 13시 인천 공항 출발 - 16시 30분 모스크바 공항 도착
2019년 8월 7일(수) 08시 모스크바 공항 출발 - 22시 45분 인천 공항 도착

주요 방문지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레닌 언더, 아르바트 거리
- 크레믈린 궁, 성바실리 사원, 붉은 광장, 레닌 묘지, 우주박물관
- 백호 김규면 장군 묘소, 전승기념관, 볼쇼이 극장
- 에르미타주 박물관, 도스토옙스키 박물관, 성 이삭 성당, 카잔 성모성당
- 표트르대제 동상, 넵스키 대로, 구(舊) 대한제국공사관, 민영환 숙소
- 이범진 공사 거주지, 이범진 공사 순국지, 이범진 공사 묘
- 피터폴 요새 및 성당, 뱃머리 등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인 묘지
-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궁전, 네바강, 푸쉬킨 박물관

답사 참가비

2018년 2차 해외 역사 탐방지였던 이르쿠츠크와 바이칼호수 일원 비용과 동일한 250만원입니다. 보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고자 일정을 8월 초로 확정함에 따라 비용이 상승했지만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세부 방문지는 다음 주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교양강좌를 윤상원 교수와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가 신청은 25명 한정으로 5월 10일까지입니다.** 참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최초의 여성 판사, 의문의 죽음 (1961년 4월 21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이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었다. 그는 1962년 태어나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판사로 임용되는 것으로 여성 법조인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판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태어나기 한해 전에 석연찮은 죽음을 맞이했고 그 뒤로 다시 여성 판사가 임용되기 까지 12년이 흘러야 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법관이었던 황윤석은 1929년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 교육자이자 사학자였던 해원 황의돈이 아버지였는데 그의 영향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1954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판사가 되었다. 그보다 한해 앞서 고등고시에 합격했으나 남편인 정일형이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이 거부되었던 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이태영 변호사였다.

1950년대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가혹하고 차별적인 상황이었다. 그는 법원에서는 법관으로 집안에서는 며느리이자 아내였고 엄마였다. 남성 법관보다 몇 곱절 힘겨운 일상과 마주해야하는 것은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그가 마주한 숙명이었다. 그러나 황윤석은 숙명을 깨뜨리며 선구적 여성상으로 떠오르며 세계여성법률가대회에 참석하고 여성문제연구회 실행위원회에 선임되는 등 치열한 일상을 개척해갔다.

이승만 정부의 권력에 맞섰던 민인들의 의기가 천지를 호령할 때 그는 남모를 고통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는 법관인 동시에 가부장제의 모순에서 가장 취약했던 아내이자 엄마였고 며느리였던 것이다. 그것은 다산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부에 재직중이던 그는 자택에서 시아버지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건 발생 얼마 후 경찰은 부검을 통해 그의 시신에서 베나드릴과 요힘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함께 발견된 그의 남편은 얼마 후 깨어났지만 그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최초 부검 결과 발표와 달리 수차례 재부검과 개감정을 통해 요힘빈 성분은 없었다고 수정 발표했으나 이 사실보다는 최초 보도에 대한 관음적 시선만 난무할 따름이었다.

깨어난 남편은 사망 전날 함께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나 평소 시어머니와의 불화는 독살설로 퍼져갔다. 여러 차례의 부검에도 독극물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박정희를 위시한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그가 주검으로 발견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결국 그 해 12월 그의 남편만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채 죽지 않았던 그에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명이었다. 그러나 1962년 9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끝내 그의 죽음은 미궁 속에 묻힌 채 반백년이 넘게 흘렀다.

그의 죽음 이후 한국 법원에서 여성 판사를 만나기까지 12년이 더 흘러야했다. 그로부터 12년이 더 흐른 1985년에 이르러서야 여성 판사가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그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58년이 흐른 2019년 대한민국 여성판사 비율은 30%(30.5%)를 돌파했다. 한국 사법역사 71년만이었고 그가 판사가 된 지 65년만이였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여성법관 비율(33.3%, 2018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한국 사법부의 여성 법관 비율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유럽연합의 여성 법관 비율(51%, 2016년 기준)에는 모자라는 형편이다.

여성의 불모지였던 법원에 최초로 등장했던 황윤석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지 58년이 흘렀지만 죽음의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직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내놓아야 할 자리가 여전히 많은 것은 불문가지이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부처님 사리모신 설악산 봉정암, 네 번째 이야기 - 내설악 계곡 예찬

봉정암에 오르기 위해서는 백담사를 나선 다음 영실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세 자락의 계곡을 거쳐야 한다. '백담계곡'과 '수렴동계곡' 그리고 '구곡담계곡'이 그것이다. 백담계곡은 백담대피소에서부터 약 1km쯤 위쪽에 위치한 흑선동계곡과 기골이 만나는 지점까지를 가리킨다. 그곳에서부터 상류 쪽 수렴동대피소까지는 수렴동계곡이라 부른다. 수렴동대피소에서부터 사자바위봉 아래에 자리 잡은 깔딱고개 하단부의 청봉골 합수처까지는 통상 구곡담계곡이라고 일컫는다. 이 계곡들은 잘 닦인 등산로로 이어졌는데, 봉정암까지는 보통 5~6시간이 소요된다.

백담계곡을 지나 수렴동계곡으로 들어서면 설악은 더욱 고운 자태가 된다. 언제나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그 주변으로 말쑥하게 몸을 닦은 바위들이 기기묘묘한 자태를 뽐낸다. 곳곳마다 쏟아지는 크고 작은 폭포들은 탄성을 불러온다. 저 멀리 하늘 아래에 출렁이는 능선의 흐름은 입이 절로 벌어지게 만든다. 그 결과 비경이라는 한마디 말로 차마 다 설명할 수 없는 풍광들이 번갈아 등장한다. 우두커니 앉아만 있어도 참으로 행복한 산이요, 물길이다.

수렴동계곡은 왼쪽으로 거대한 용아장성을 끼고 오른쪽 물줄기를 구경하며 오르는 길이다. 아름다운 계곡은 굳이 빨리 걸을 필요가 없다.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천천히 걸어야 한다. 때로는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앉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을 그림으로 새겨야 좋은 곳이다.

수렴동계곡은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면서 저절로 착한 사람이 되는 곳이다. 남보다 빠르게 앞설 이유가 없다면 사람은 저절로 착해진다. 자연의 섭리를 찾는 순례자는 늘 느리기 마련이다. 설악산 또한 겸허하고 더딘 순례자들을 위해 자신의 내면을 슬금슬금 열어 놓는다. 먼저 바람의 냄새를 맡게 해 준다. 이따금 바람의 군무까지 보여 준다. 바람은 사계절 다른 냄새가 난다. 봄날의 향긋한 냄새와 달리 여름바람에는 비릿함이 배어 있다. 가을에는 달착지근한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시큰한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설악산의 여름 녹음 깃든 봉우리마다 선계의 구름이 내려앉는다.



설악산의 겨울 흰 눈이 내리면 더욱 깊고 고요해진 가슴을 슬그머니 연다.

바람의 군무는 그 세기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다. 산들 부는 바람결에 산자락 앞사귀들은 잘랑거리면서 작은 춤사위를 보여 준다. 이따금 계곡의 바람이 우우 하는 소리를 내며 거칠게 달음질치면, 나뭇잎들은 한쪽으로 죄 하얗게 뒤집어지며 사납고도 빠른 춤을 선보인다. 계곡에 훑날리는 꽃잎과 낙엽은 봄과 가을이 보여 주는 요란한 갈채다.

설악의 구름은 온갖 빛깔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 낸다. 사계절 아침저녁으로 전혀 다른 빛깔을 지니고 하늘에다 한 번도 닳은 적이 없는 무념무상의 그림을 마구 그려 낸다. 물의 향연은 또 어떠한가? 내내 잔잔한 여울로 흐르다가 어느 곁에 전신을 내동댕이치며 폭포로 돌변하는 변덕은 놀랍지도 않다. 거친 흐름에 지친 물살이 소를 만나 이내 걸음을 멈추고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뚝 떼는 모습도 마냥 아릿하기만 하다. 검다 못해 시퍼런 바위에 들어앉은 '구담'의 푸름은 아무리 보아도 싱그럽다. '서미소'와 '만수담'도 이에 뒤지지 않는 자태를 자랑한다.

맑은 물살이 영겁의 세월 동안 부린 변덕과 조화가 계곡의 바윗돌을 환상적인 모양으로 빚어 놓았으니 그 매혹적인 자취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특히 '쌍룡폭포'와 '용손폭포'는 무척이나 인상 깊은 내설악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처럼 장중하고 수려한 내설악 풍치는 늘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결코 천박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도 신성한 자태는 길 가던 사람들을 절로 멈추게 만든다. 비록 하루나 이틀 짧은 시간을 스치고 지나가는 나그네라 하더라도, 그들은 설악의 품에 안겼다는 커다란 희열과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기에 누구나 속세로 돌아가서도 설악의 황홀한 내면 풍광이 눈에 삼삼한 것이다.

- <천년암자에 오르다>는 앞으로 매주 뉴스레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흐름출판사 한명수 대표님과 유영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는 봉정암과 자장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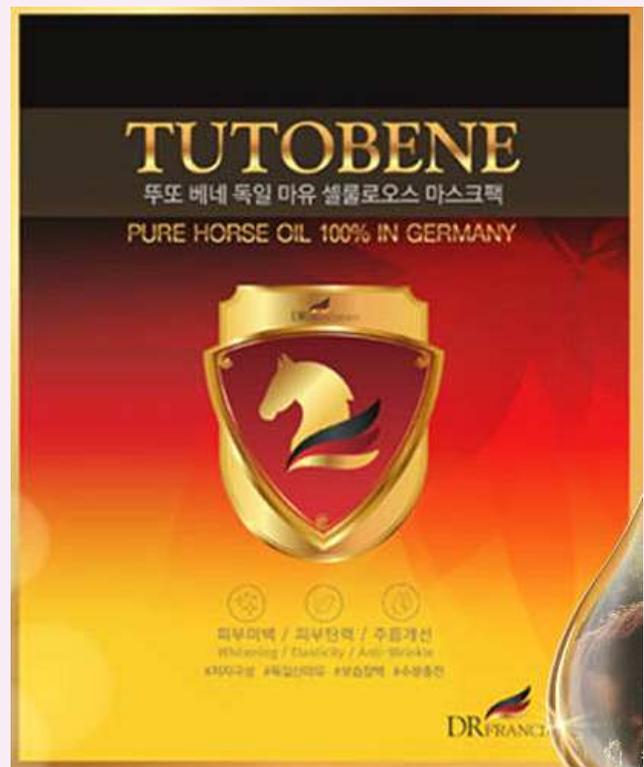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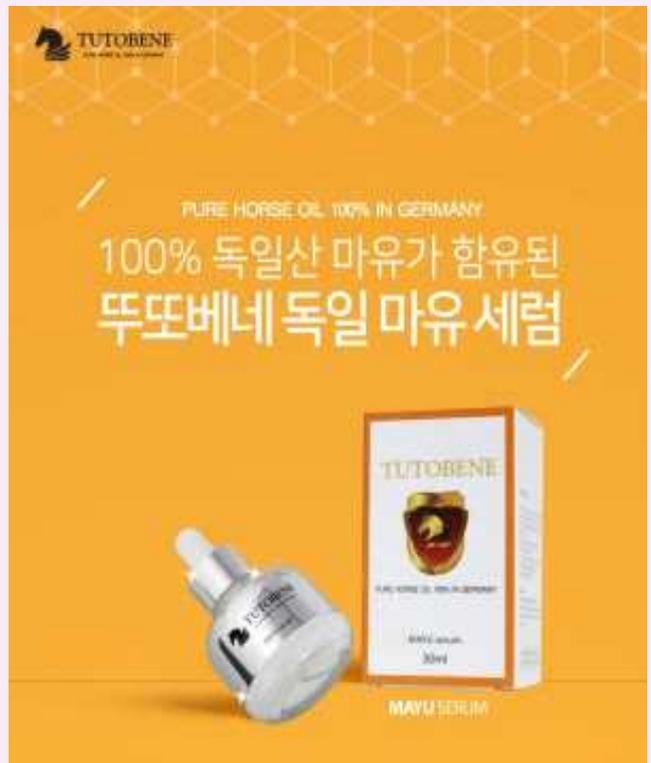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